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의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4년 4월 9일
발 의 자 : 황경환의원 외 인

1.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2004년 4월 1일 개통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과 함께 시속 300km의 초고속철도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나,

고속철도 정차 역이 없는, 구미 등 지방 중소도시들은
국철의 운행 횟수 감축으로, 오히려 교통 여건이 악화되었음.

따라서, 구미시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은 물론, 구미국가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있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안을 건의코자 함.

3. 참고사항

○ 고속철도 개통 전후 국철 운행현황

4. 건 의 처 :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건 의 안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2004년 4월 1일 개통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등과 함께 시속 300km의 초고속철도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과 기대감은 우리 구미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2003년 수출실적 205억 66백만달러, 2004년 수출목표 230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10.6%를 담당하는 구미국가공단의 새로운 활력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김천구미역사는 2008년에나 설치 될 예정이고 구미시민과 국내외 바이어들의 주요 교통 수단인, 국철의 운행 횟수 감축으로, 구미시민과 방문객의 불편함은 물론, 구미국가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있어, 다음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김천구미역사의 위치 선정시에는, 구미국가공단 기반시설로서의 활용도 제고 및 조속한 임시 역사 운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국가공단 활성화 정책에 연속성을 유지 시켜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고속철도 운행에 따라 구미를 경유하던 기존 열차의 운행횟수가 감소된 것을 감안하여, 대전↔동대구간 구간연계열차(새마을, 무궁화호)를 대폭 신.증설하여, 구미시 방문객 및 국내외 바이어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셋째, 2005년말 완공예정인 경부선 전철화 사업을 금년 말까지 조기준공 하여, 국내 최대 내륙산업도시인 구미의 교통기반시설 확보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함께 하는, 진정한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건의사항들이 적극 반영되어, 구미권 지역민에 대한 수준 높은 교통편의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미국가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 4. 30.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